증시의 장기 수요기반 확충 방안
-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을 만들어야



리서치센터 김학균

신영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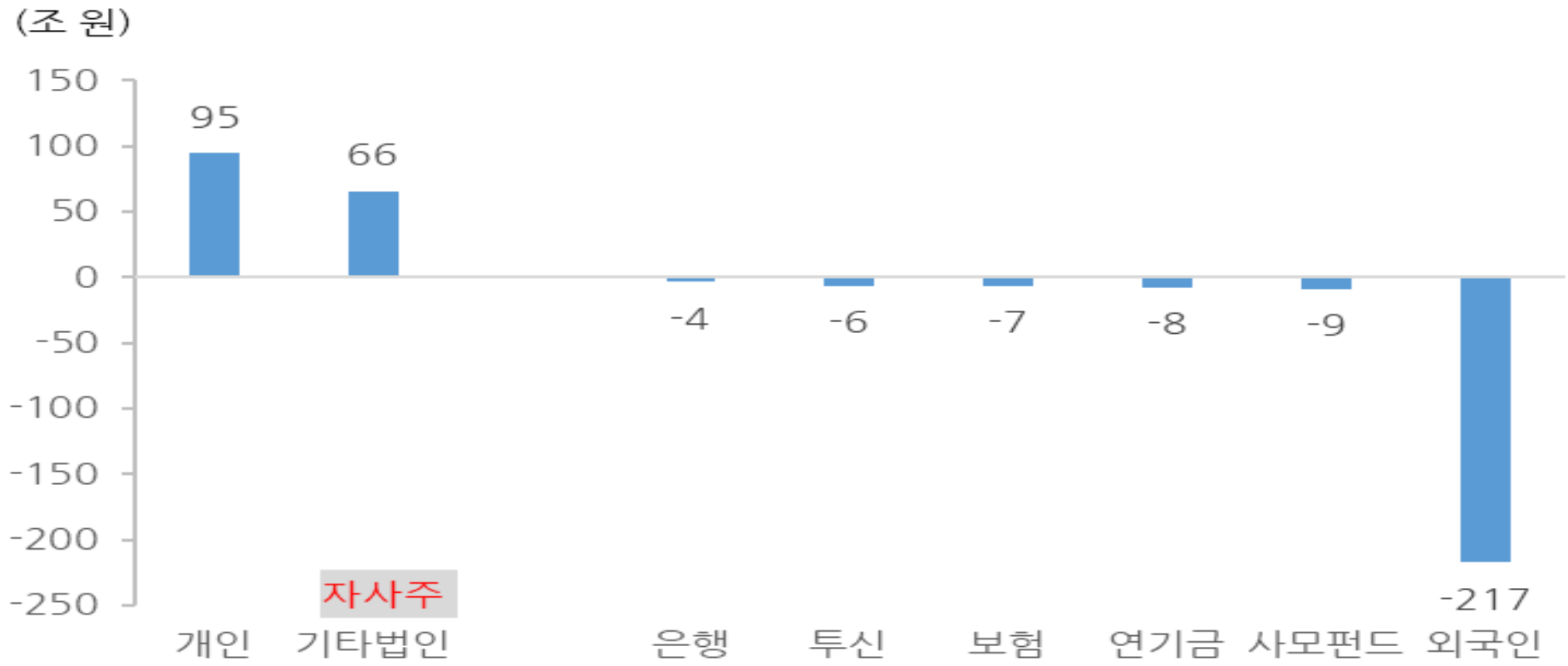
2026. 11.13

한국증시의 수요 기반

개인 투자자와 자사주 순매수,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순매도

올해뿐만 아니라 고착화된 구도

2026년 투자주체별 매매



주 :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합계, 2026년 11월6일까지의 거래 누계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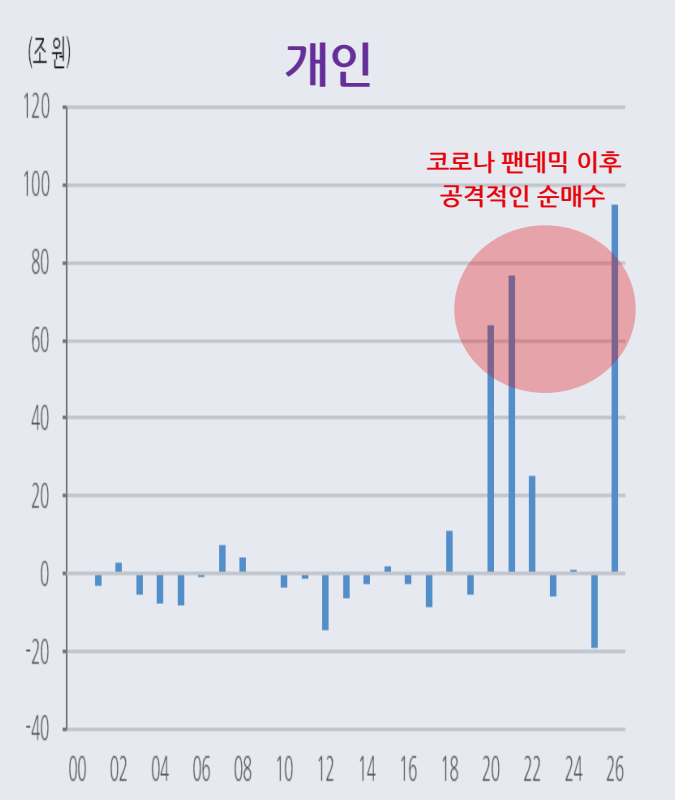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 거래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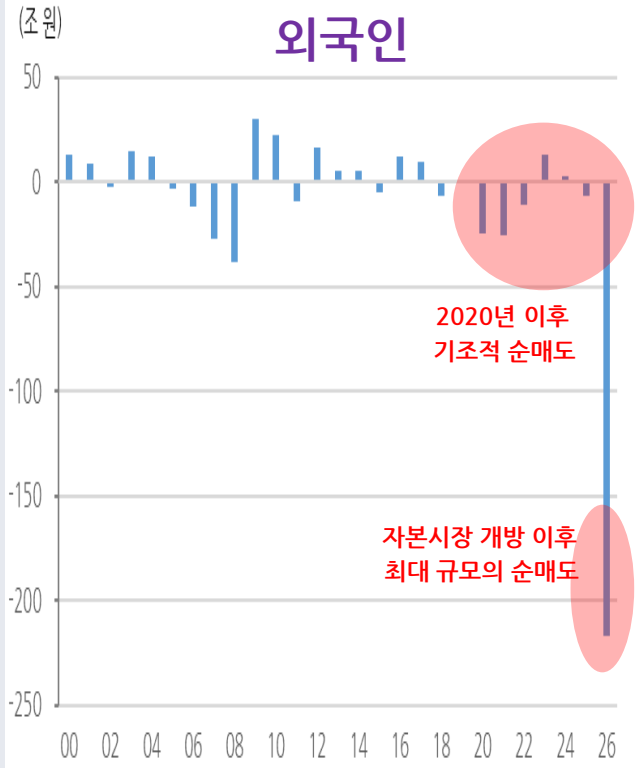
한국증시의 수요 기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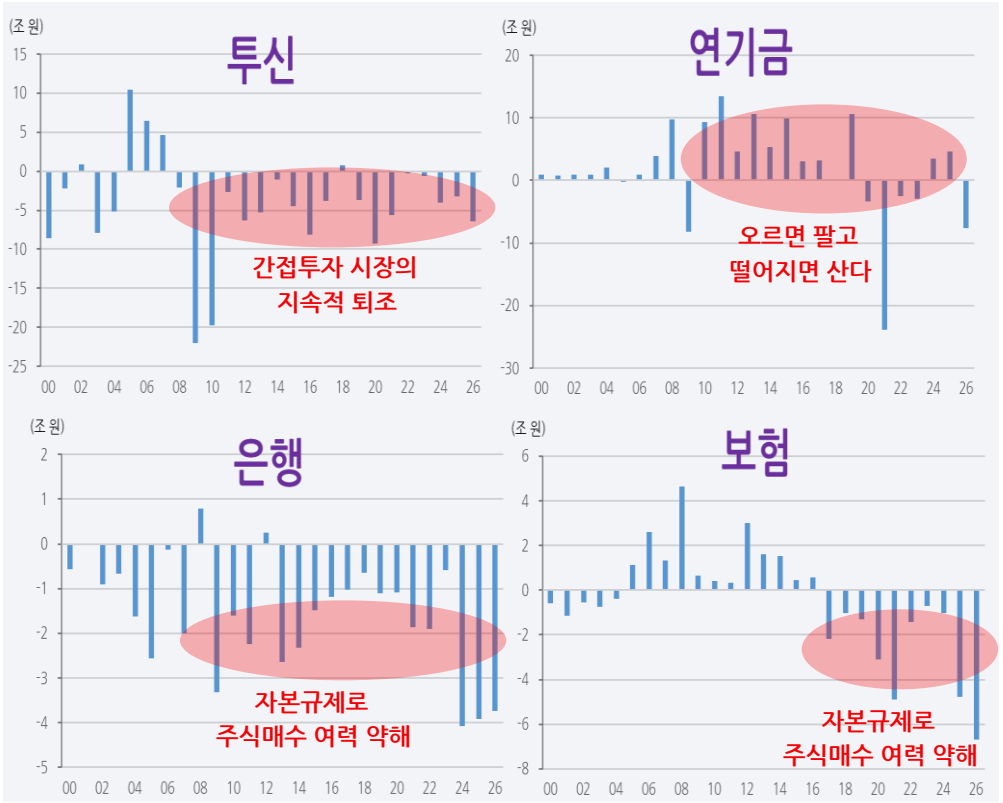
세 가지 이슈

①외국인에게 한국 증시는 매력적 시장인가?, ②가계자금은 증시로 계속 유입될 것인가?, 개인투자자들이 집단적 성공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을까?
③간접투자 시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?

연간 투자주체별 매매 (2000년~)







주 :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합계, 2026년 11월6일까지의 거래 누계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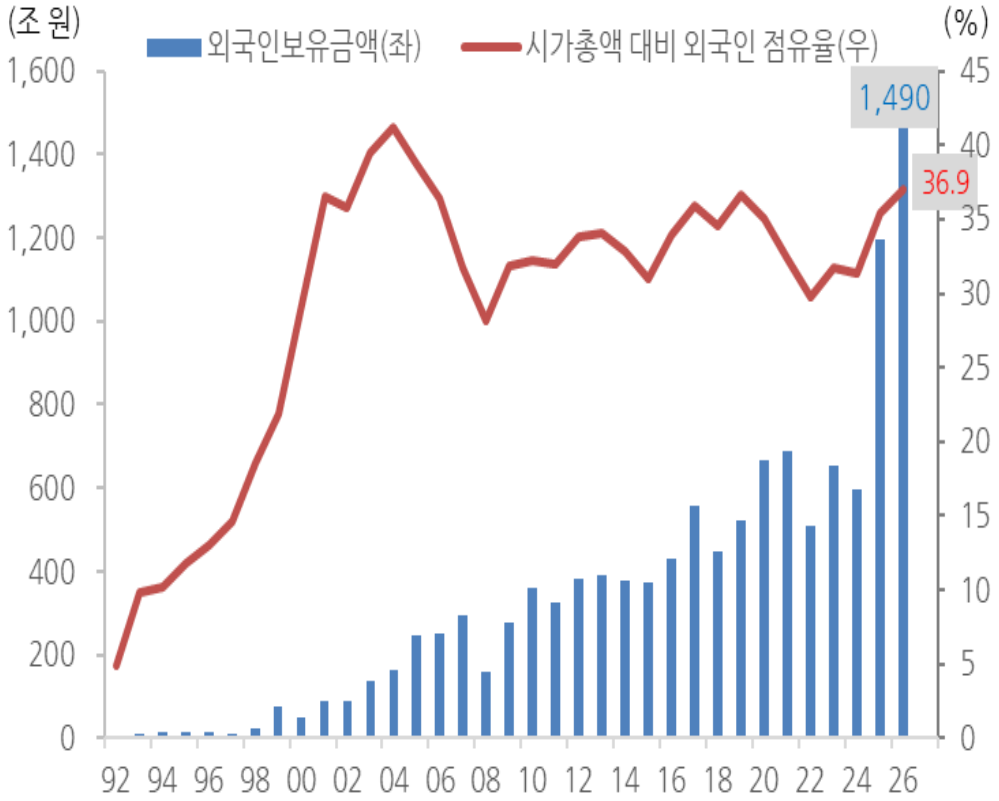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 거래소, 신영증권 리서치센터

외국인 투자자

이미 한국 증시의 1/3 이상을 점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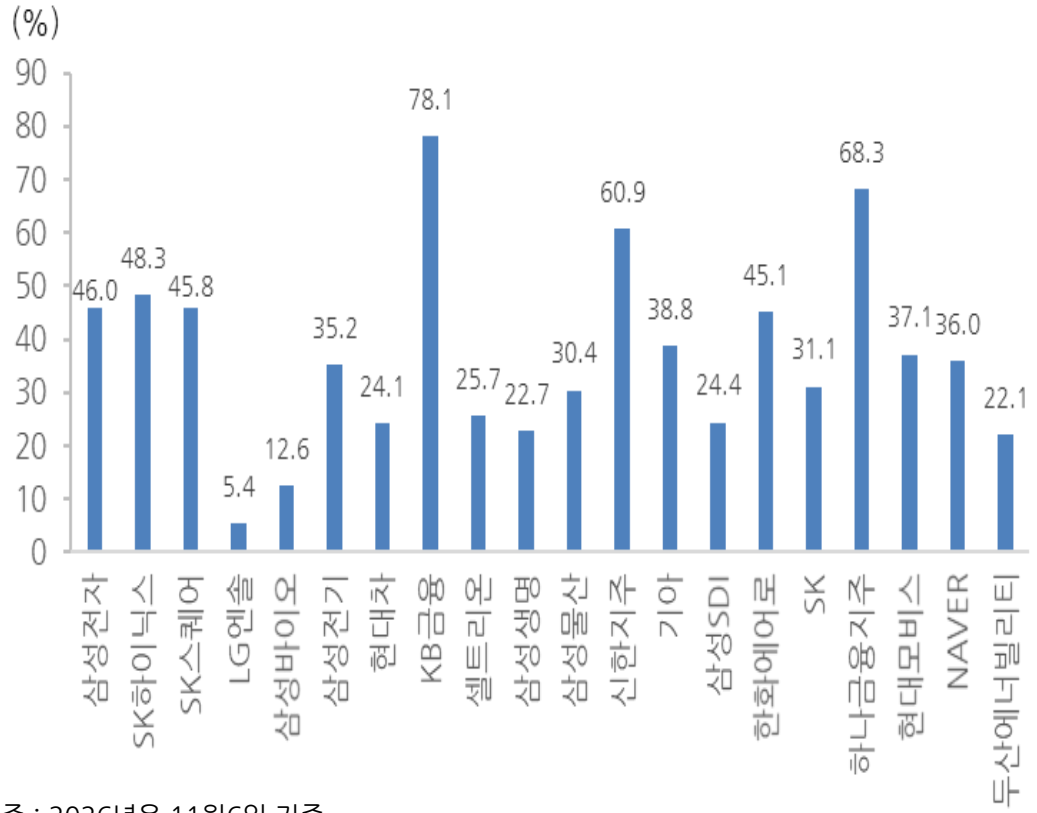
코스피 시가총액의 36.9%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
주요 금융주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60%를 상회, 반도체 주요 종목들도 40%대

코스피 외국인 보유금액과 시가총액 점유율



주 : 2026년은 11월6일 기준
자료 : Bloomberg, 신영증권 리서치센터

시가총액 상위 20대 종목 외국인 지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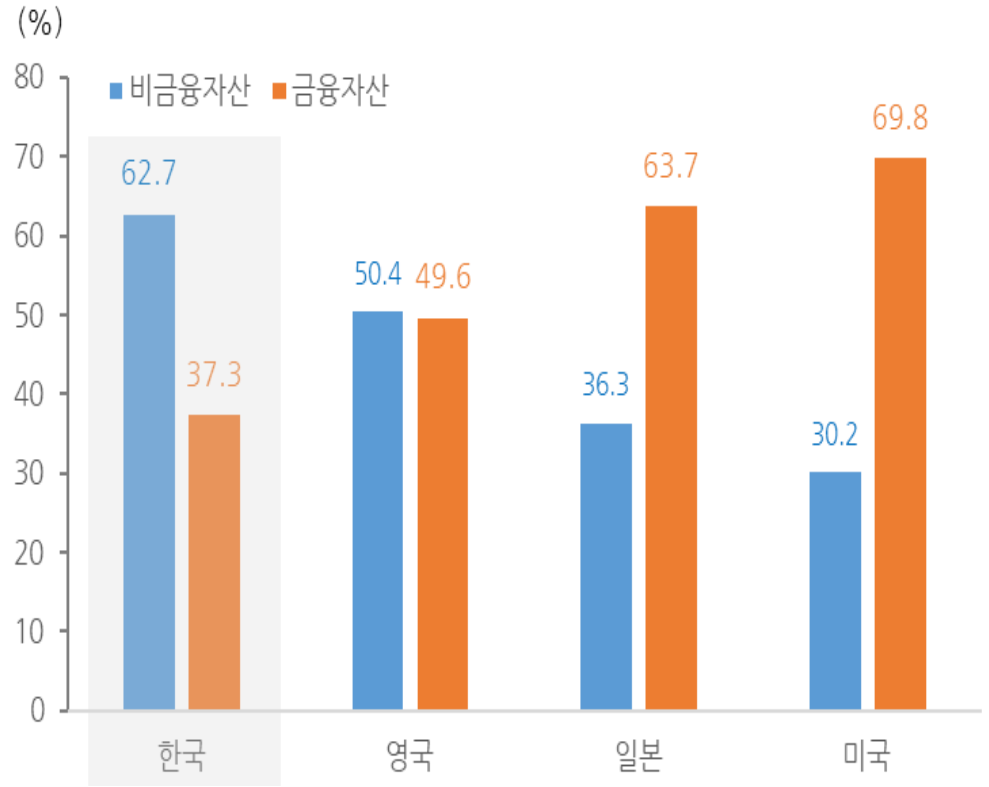
주 : 2026년은 11월6일 기준
자료 : Bloomberg, 신영증권 리서치센터

한국 개인투자자

한국 가계자산의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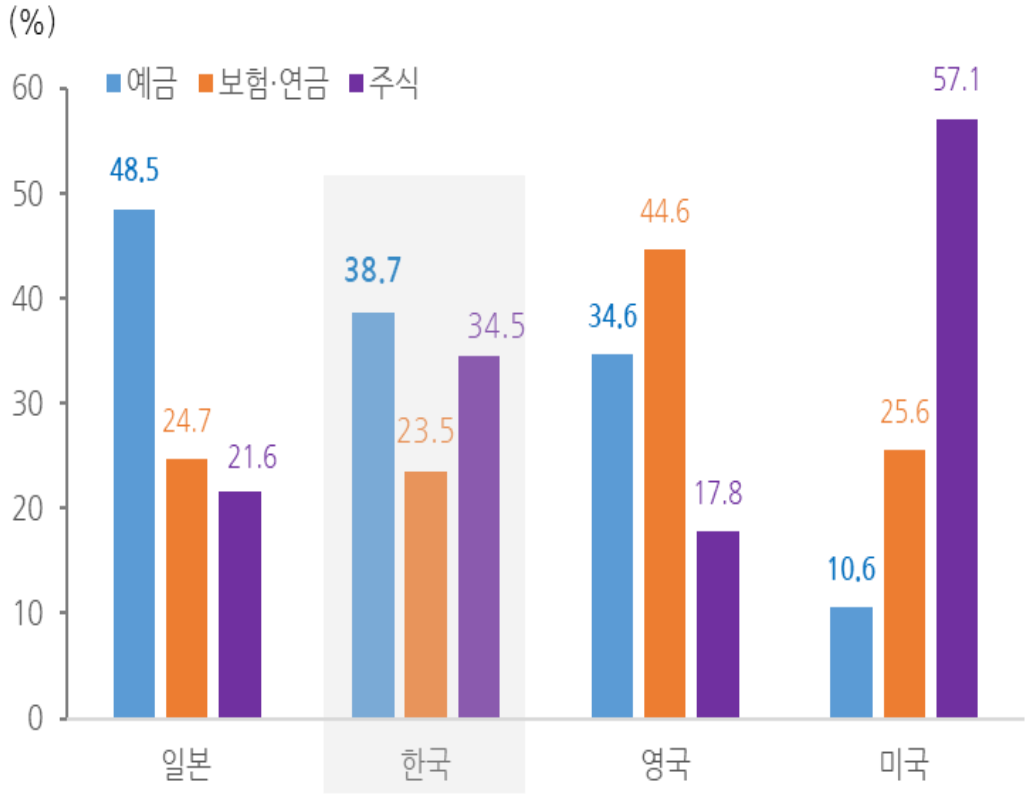
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고, 금융자산에서는 예금 비중이 높아

주요국 가계자산 구성비



주 : 한국과 미국은 2025년 말, 영국과 일본은 2024년 말 기준
자료 : 금융투자협회

주요국 가계금융자산 구성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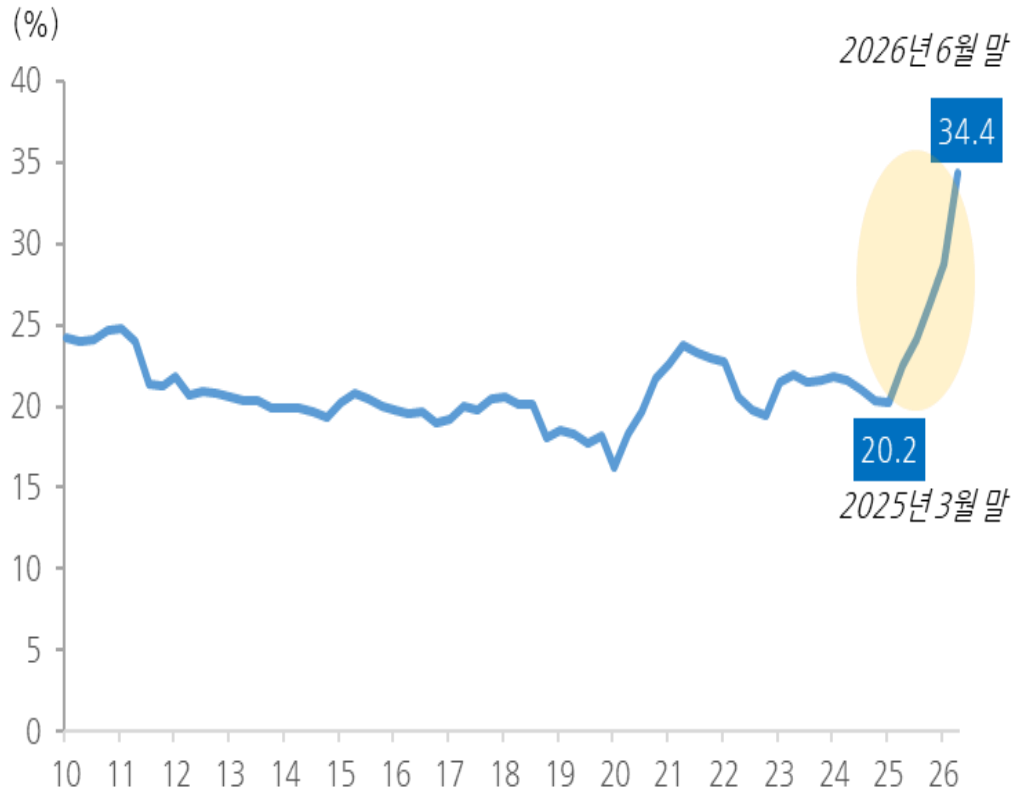
주 : 한국은 2026년 6월 말, 기타 국가는 2025년 말 기준
자료 : 한국은행, 연방준비제도, 일본은행, 영국 통계청, 호주 통계청

한국 개인투자자

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유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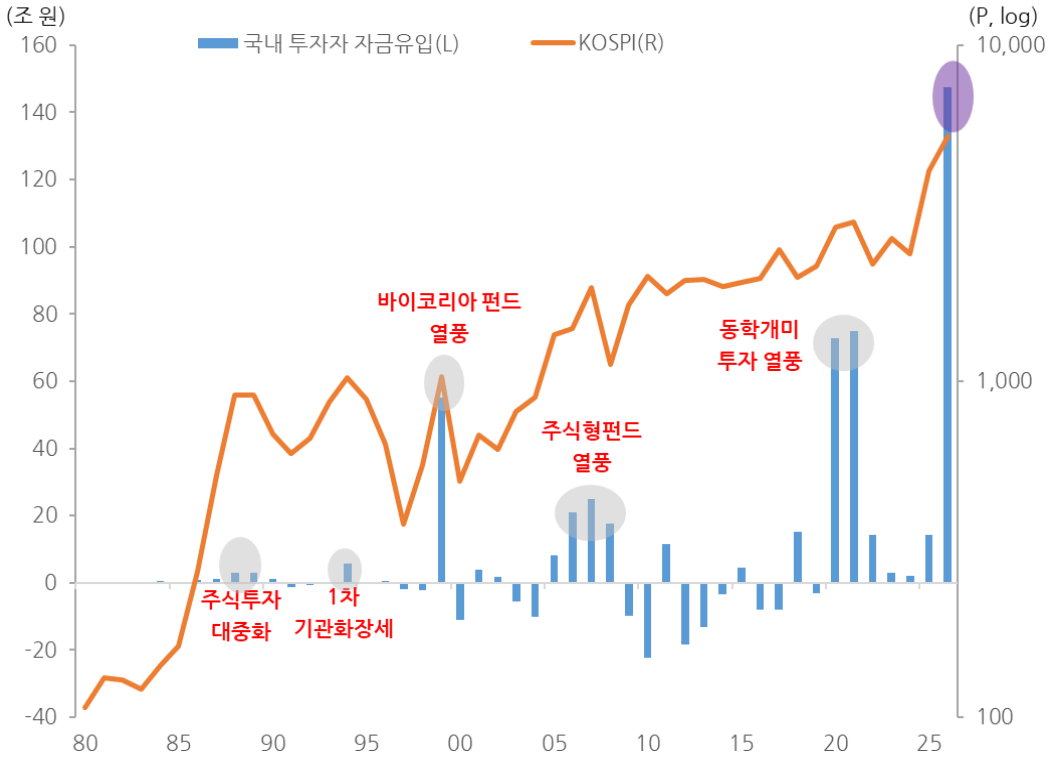
2026년(~11월5일) 순유입 147.4조원 (직접투자자금 92.6원, 주식형펀드 54.8조원)
늘 고점 부근에서 나타났던 주식 투자 붐

한국 가계금융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



자료 : 한국은행

KOSPI와 한국 가계자금의 증시 유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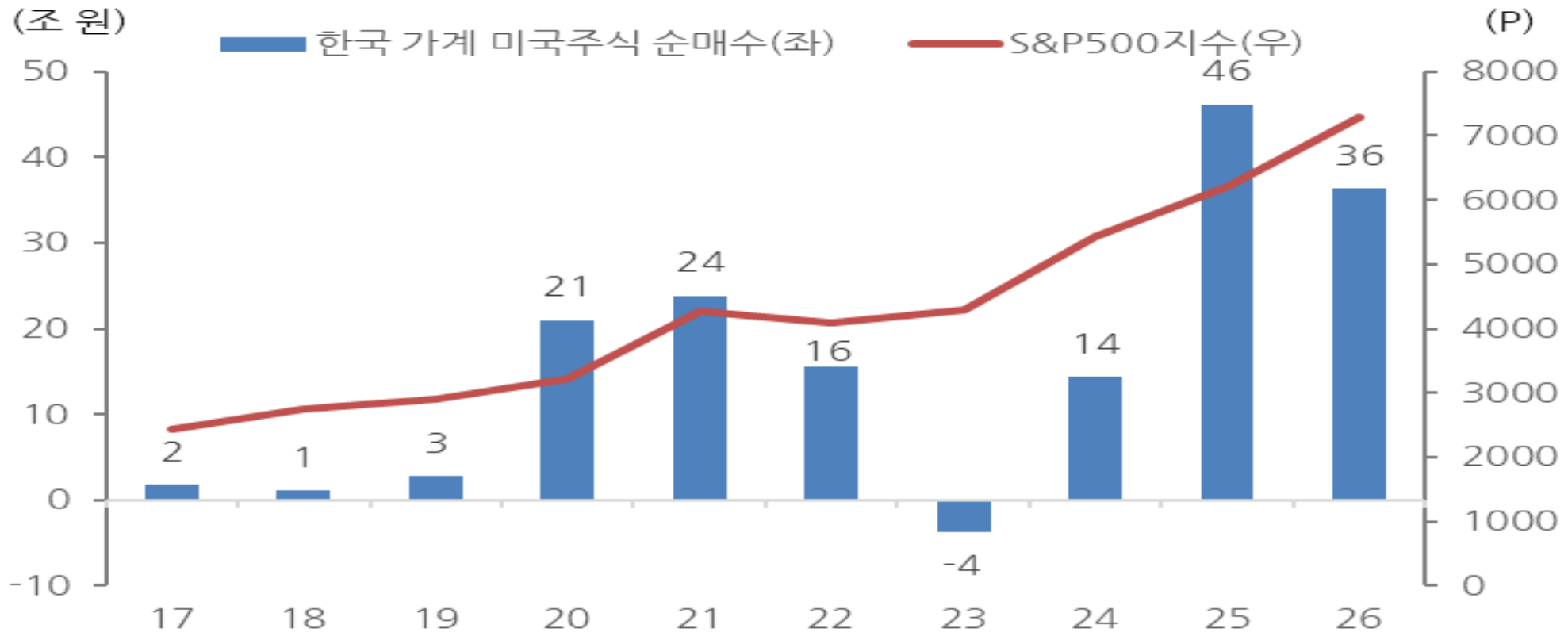
주 : 국내 투자자 자금유입은 '주식형 펀드 순유출 + 직접 투자자금 유출입 '
자료 : 한국 거래소, 금융투자협회, 신영증권 리서치센터`

한국 개인투자자

양도차익 과세를 하는 미국 주식을 계속 사는 이유

집단적 성공의 경험이 중요, 궁극적으론 시장 자체의 매력이 좌우

한국 가계 미국 주식 순매수와 S&P500지수



주 : 순매수 규모는 월평균 원/달러 환율로 조정, S&P500지수는 연평균 값, 2026년은 11월5일까지의 데이터
자료 : 한국 거래소, 금융투자협회, 신영증권 리서치센터`

한국 증시의 과제

장기 성과 개선

1000 포인트에서 2000 포인트, 2000 포인트에서 4000 포인트 도달에 모두 18년이 걸려

코스피 (1972년~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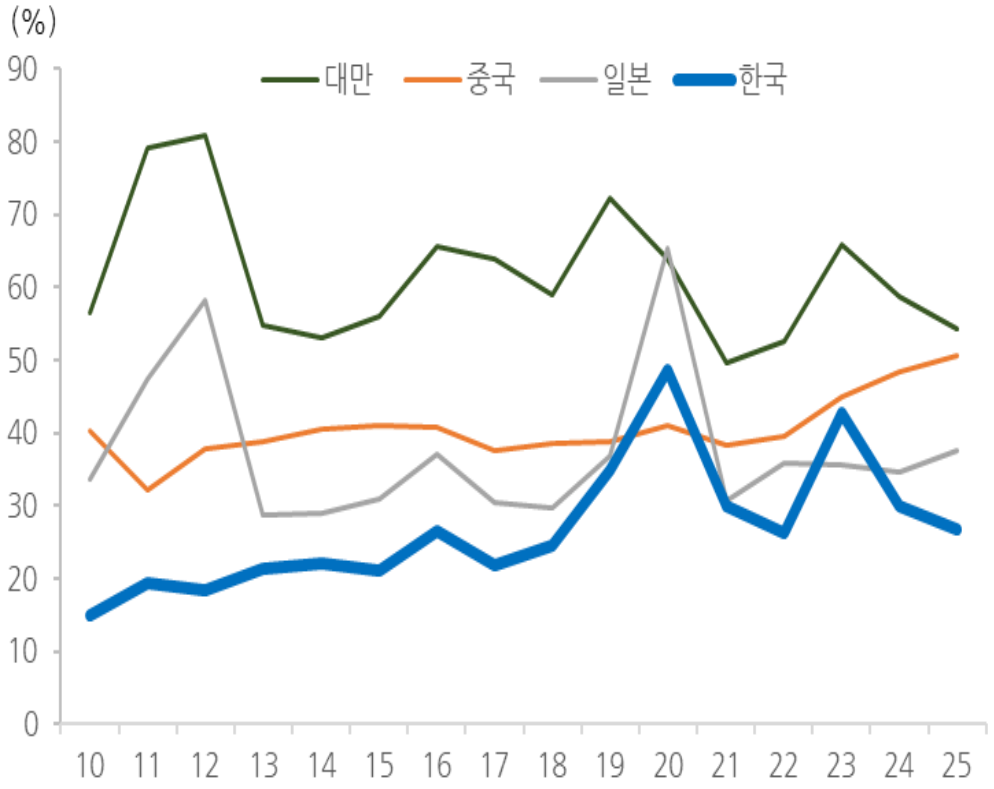
자료 : CEIC, 신영증권 리서치센터`

한국 증시의 과제

인색한 배당 개선과 상장 종목 관리의 중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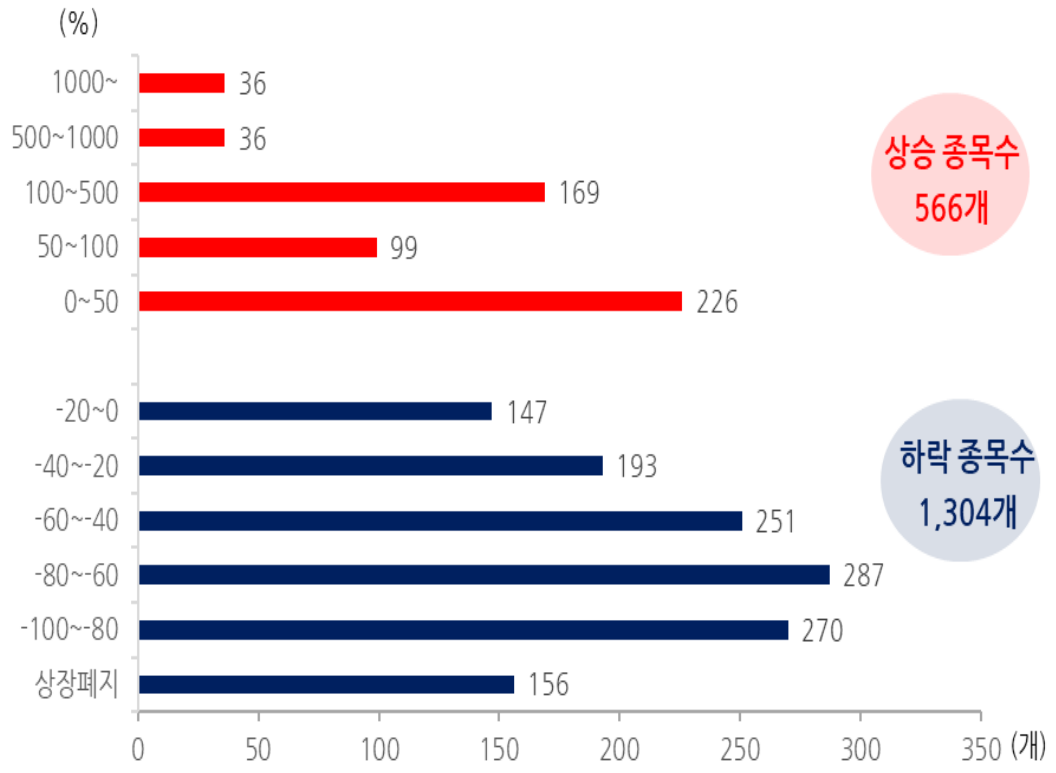
비슷한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를 가진 동북아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배당 성향이 낮아
최근 10년(2016년 10월 말~2026년 10월 말) 동안 KOSPI는 185.3% 상승 (2,008p →5,730p), 그러나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

동북아 4개국 배당성향



자료 : 불룸버그

최근 10년 장기 투자시 수익률 분포



자료 : 불룸버그

제도 개선 제안

1. ISA(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) 활성화

- '국민의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' 으로 육성
- 미성년자 가입 허용
  : '우리아이자립펀드'도 ISA와 연계
  : '우리아이자립펀드 → 일반 ISA → 연금계좌'로 이어지는 플랫폼으로 기능
- 현행 제도는 가입 후 해지, 재가입을 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
  보유 기간에 비례한 인센티브 부여

2. 장기 투자 기반 확충을 위한 공모 펀드 활성화

- 공모 펀드는 장기분산투자, 저비용, 투자에 수반되는 감정적 소모 경감 등에 좋은 수단
- 기관 투자자의 신뢰 회복 노력 필요
  : 판매 실적이나 단기 수익률보다 장기 성과와 비용 경쟁력을 중시하는 운용· 판매 구조 조성
- 장기·적립식 투자에 대한 금융 교육 확대